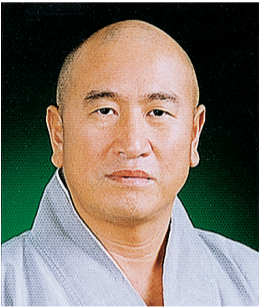


무공저

인구문제 풀 청년정책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합계 출산율은 0.86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입 여성 한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가리킨다. 여성이 최소한 2명을 낳아야 기존 인구가 유지되는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부터 1명 아래로 떨어졌다. 유엔 인구통계에 따르면 이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19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이번 통계에서 또 다시 확인된 것은 혼인건수와 청년층부터 30대 40대의 젊은 인구가 모두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늘어난 것은 50대와 60

그래서 출생은 생산가능인구 증가보다 더 심오한 우리 삶의 근본적 의미와 연결돼 있다. 출생은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웃고 즐기고 더불어 사는, 존중 받아야 하는 존재로서의 출발이다. 그런데 아들이나 딸이 마흔 되도록 미혼인 채 집에 얹혀사는 현실은 더 이상 놀랄지도 않게 되었다. 젊은 세대는 극심한 취업난, 치솟는 물가, 학자금상환 부담, 갑갑 불가한 집값 등이 겹치며 사회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려 연에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 아울러 결혼이나 육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망, 좋아하는 취미생활하며 인생을 마음껏 즐기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출산율이 낮을



중상
 (청계사 회주)

'생명 존엄'에 대한 가치부터 회복 '더 나은 세상' 비전 제시와 신뢰를

세 이상의 노년인구이다.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되어 5명당 1명이 노인인 노년 공화국이 된다는 전망이다. 생산연령(15~64세) 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계속 늘어나면 사회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생산성과 성장률 추락, 재정 악화 등의 연쇄적 파장이 불가피하다. 인구 재앙이다. 누구나 때가 되면 사람이 빠지고 결혼해 아이 낳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여겼었다. 결혼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더라도 결혼 없는 인생을 생각할 수는 없었다. 나이 차면 독립해 가정을 이루고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 몰르듯 자연스러운 생의 흐름, 순리였다. 청년은 결혼과 출산 전, 가족 형성을 통한 행복한 삶을 꿈꾼다. 양육과 교육, 노동과 소비, 주거, 노후와 여가가 모두 이 희망적 계산 안에 있다.

수밖에 없다. 결혼 기피가 인구 감소의 중심에 있는 이상, 마음 놓고 일하며 결혼하고, 삶을 누리는 미래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청년이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시작은 청년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영토와 인구, 주권으로 구성된다. 국민 없이 국가가 존재할 수는 없다. 인구는 곧 국력, 인구감소는 국가 존망의 문제이다. 한 생명이라도 더 낳으라고 하기 전에 생명의 존엄에 대한 가치부터 회복하는 것이 순서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인간 존엄과 평등을 선포하고 나투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생명존중' 사상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신뢰를 얻는 계산식이다.

난치병 어린이 돕기 자선 음악회 개최

지속적으로 어린 환우들에게 희망 나눔, 평안 위해 노력

화창한 초여름이 막 시작된 지난 6월 11(토), 12(일), 18(토), 19(일) 4일간 우람바라 기념비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청계사 협찬, 한국불자가수협회(회장 이창환) 주최로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치료비 및 수술비 모금을 위해 자선 음악회를 개최하여 많은 불자들과 지역주민들의 동참 속에서 성황리에 끝마쳤다.

음악회에는 주지 성행스님 및 이창환 한국불자가수협회장을 비롯해 이소영(의왕, 과정)국회의원등 지역 정치인 및 청계사 불자, 지역 주민, 등산객등 많은 사람들이 심시일만 기금 마련에 동참하며 산 속 공연을 통하여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주지 성행스님은 행사에 동참하여 인사말에서 "작은 정성이 모여 큰 힘이 되어 병마와 고통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도울 것이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창환 회장은 "자선음악회를 통해 잠시나마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고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하며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 환우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눔과 감동이 있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흘 동안 진행된 자선음악회에는 이창환(건아들)회장의 사회로 장계현, 양키즈이출, 고교 알게 출신 영화배우 이승현, 제인스 김, 뽀뽀뽀 뽀미언니 이혜민, 가수 이은숙, 연지화, 이주연, 양정숙, 우연이 등 60여 명의 유명인이 동참하여 재능기부로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꿈을 선물했다. 자선음악회 수익금 일백만원, 청계사 신도회와 주지 성행스님 후원금 삼백만원을 사단법인 청소년 마이트리에 전달했다. (글 심대덕님)



▲난치병 어린이 기금마련을 위해 공연을 펼치고 있는 가수들.



▲자선음악회를 통해 마련된 기금을 사단법인인 청소년 마이트리에 전달했다.

생활의 지혜

이야기 백유경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

기다리지 않고 공연히 왔다 갔다 해

○.....이야기 속 아들은 아버지와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정확한 목적, 목표도 없이 혼자서 그 마을을 갔다. 아버지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마을을 갔다 오겠다는 호기를 부렸다기 보다는 욕심과 어리석음이 앞섰던 것이다. ○.....사람들이 인생길을 걸으면서 쓸데없는 자존심과 오만함으로 성인의 가르침을 듣기보다 자신의 생각대로만 하여 많은 어리석음을 범한다. 목적지를 모르고 열심히 걷는다면 아무리 걸어도 목적지에 갈수가 없다. 주위만 맴도는 결과를 낳고 만다. 정확한 목적지가 없이는 아무리 수행해도

옛날 어떤 사람이 밤에 그 아들에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너와 함께 저 마을에 가서 거기 있는 것을 가져오자."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이튿날 아침 아버지에게 묻지도 않고 혼자서 그 마을로 갔다.

그 곳까지 가서 몸은 구히 피곤하였고 아무 소득이 없었다.

또 밥을 먹지 못해 주리고 목말라 거의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바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찾았다.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매우 나무랐다.

"이 미련하고 무지한 것이야, 왜 나를 기다리지 않고 공연히 갔다 왔다 하여 한갓

수고만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느냐?"

(예설) 범부들도 그와 같다. 비록 집을 떠나게 되어 머리와 수염을 깎고 법복을 입더라도 밝은 스승을 찾아 배우지 않고, 온갖 선정과 도품의 공덕을 잃고 수행의 묘한 결과를 모두 잃어버린다. 그것은 미치 어리석은 사람이 헛되이 갔다 왔다 하면서 스스로 지지기만 하는 것처럼, 형상은 비록 슈라마나 갈더라도 실은 아무 소득이 없다.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자유로운 사람은 행위를 하되 행위의 대가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 이 생각은 지극처럼 인생관이 혼란스럽고 삶

의 의식이 불분명한 시대에 가장 잘 어울린다.

행위에 대한 결과는 원래 없다. 행위 그 자체만 있을 뿐이다.

법보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계사보 법보시를 받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50부:10,000원 100부:20,000원

- *법보시 명단
 - ♣ 서울구치소 박경선 50부, 박유진 150부
 - ♣ 인양교도소 일동포장기계 150부 김희용 50부, 김정중 50부
 - ♣ 수원구치소 김향수 50부, 김영현 50부 김민준 50부, 조수환 50부
 - ♣ 청주여자교도소 정중순 50부, 김대희 50부
 - ♣ 경주 교도소 이갑숙 50부, 이근혁 50부 이고은 50부, 윤석호 50부
 - ♣ 여주교도소 손준형 50부, 박민호 50부
- 기업은행 109-058786-01-040 (예금주:청계사 출판부)

백중·칠석·학업성취 백일기도 안내

백 중

- 입 재 : 불기 2566년 6월 25일(음력 5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 회 향 : 불기 2566년 8월 12일(음력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기도안내 : 초제 7월 1일부터 6제 8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사시에 제사를 지냅니다.
- 기도비 : 5만원
- 영가위패 : 1위당 5천원
- 영가 등 : 1만원
- 쌀 3되 (제일 때마다 영가에게 공양을 올리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치약, 칫솔, 비누, 세숫대야, 양말, 수건, 영가 옷 등은 회향일(음 7월 15일)에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영가 옷(종이 옷)은 신도회에서 판매합니다.

칠 석 기도

- 입 재 : 불기 2566년 8월 4일(음력 7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기도비 : 3만원
- 차량안내 : 백중기도 입재와 회향, 칠석 때 오전 7시, 8시, 9시, 10시, 11시 인덕원 전철역 3번 출구에서 직진하면 미가람치 앞에서 걸 버스를 운행합니다.
- 문의 : 종무소 (031) 426-2221, 2348
- 은행계좌 : 109-058786-01-413 기업은행 (예금주 : 청계사) ※ 송금 시 종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학업성취 백일기도

- 입 재 : 불기 2566년 8월 10일 수요일
- 회 향 : 불기 2566년 11월 17일 목요일
- 기도비 : 15만원
- 학업성취 : 3만원
- 차량안내 : 입재일 오전 7시, 8시, 9시, 10시, 11시에 운행합니다.
- ※ 매일 10시 30분 사시기도와 오후 2시 특별기도 있습니다.

선요

우리나라 조사선의 전통이 뿌리내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선요(禪要)>는 중국 남송시대 임제종의 맥을 이은 고봉(高峰)스님의 법문집으로 강원에서 사집과의 학인스님들이 배우는 과목이다. 고봉스님은 이 책에서 자신의 수행 경험을 토대로 본래성불(本來成佛)과 순간 깨침을 말하면서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하근기 사람을 위해 참구깨침의 방편으로 선을 소개하고 있는데, 화두를 참구해서 확철대오에 이르는 단계마다 필요한 요소나 경계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편집자주>

直翁居士의 편지에 답하다 (答直翁居士書)

(平常心이도 도인이 無心이 도인가의 의식에 대하여 一切言句에 도착하지 말고 오직 憤志 정진하면 자연 無心三昧를 얻어 모든 것이 陽炎空華等과 같음을 알 것이다 답함)

은 글에 물음을 둔 것이 다 이는 학인의 공부할 때 의혹처를 변론 한 것이니 마땅히 결정하여 覺學 初機로 하여금 취향 하는데 막힘이 없게 하겠다.

물은 바 “평상심이 도입니까? 무심이 도입니까?”한 평상심과 무심의 어구는 많은 사람들을 성공케도 하고 그르치게도 한 것

나의 關이 막혀있다.” 한 겹 어찌 하나 뿐이겠는가? 다시 모름지기 백 천 만겁이 있는 줄 알라 진실로 분발 정진하여 한 가닥 죽음에 대한 공부를 쓰지 아니하면 어찌 木石과 다름이 있었는가?

무릇 공부를 지어 極則處에 이르면 반드시 無心三昧에 들것이니 도리어 無心과는 앞의 천지가 서로 먼 것이다.

老胡가 이르되 “마음을 담벼락과 같이 하라” 하고 부자는 석 달 동안 맛을 잊었으며, 顏回는 종일도록 천치와 같이 했고 貫鳥는 推敲를 취사하니 이들이 곧 무심한 종류들

방편의 바다-비유의 가르침

법화경

수기품(授記品) 줄거리 <상>

『법화경』은 경 전체에 걸쳐서 수기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고 무수한 제자들에게 수기를 한다. 보살, 이승(二乘), 선인, 악인, 여인, 천인을 가리지 않고 수기한다. 그러므로 법화경을 ‘수기경’이라 할만한 정도이다.

제1 ‘서품’에는 일월등명불이 덕장 보살에게 수기하고, 제3 ‘비유품’에는 석가모니불께서 사리불에게 수기한다. 또 제6 ‘수기품’에는 석가모니불께서 마하가섭, 대목건련, 수보리, 마하가섭 연 등 네 제자에게 수기하고, 제8 ‘오백제자수기품’에는 부루나와 오백제자에게 수기하며 제9 ‘수학무학인기품’에는 아난, 라후라등 2천 제자에게 수기한다.

원시팔품의 성문제자들에게 대한 수기에는 10대제자 가운데 아나올과 우바리는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이 성불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에게 수기를 주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번 호에 살펴볼 제6 ‘수기품’에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대한 수기가 있게된다. 석가모니불께서 마하가섭, 목건련, 수보리, 가섭연 등 4대 성문제자에게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주신다. 장자와 공자의 비유를 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터득한 마하가섭에게 석존은 제일 먼저 장차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를 주신다. 마하가섭

『법화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 영축산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경전입니다. 정식 명칭은 『묘법연화경』으로 제목에 연꽃의 이름이 들어간 유일한 불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힘들고 지친 말법 시대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법화경』을 수시로 외고, 쓰고, 전하면 인생살이가 한결 즐거워질 것입니다. 절망하거나 우울한 것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에는 빠져나갈 문이 우리를 향해 열려있기에 그 문을 열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 『법화경』 속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중국의 대표적 불경연구가 페이옹 교수의 저서 『법화경 마음공부』를 중심으로 편집부에서 정리해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마하가섭이 제일 먼저 장차 부처가 되리라” 불법을 믿으면 성불할수있다는 확실한 희망

은 미래세에 삼백만억의 모든 부처님을 친견하여 받들어 공양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고,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큰 법을 설하다가 최후에는 성불한다는 것이다. 그때 대목건련, 수보리, 마하가섭연등이 감격하면서 마하가섭이 수기를 받는 것을 부러워한다. 부처님은 세 제자에게도 장차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주신다.

그러면 수기란 낱말의 뜻과 그 종교

적 의미를 살펴보자. 수기는 수기(授記), 수결(授決), 기설(記說) 등의 뜻이 있다. 예를들어,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에게 수기를 주실 적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의 가섭이 내세에 많은 부처님을 받들어 공양공경하고 존중찬탄하여 불법을 선양하다가 최후신에 성불해서 불

첫째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일이다. 나도 불법을 믿으면 꼭 해탈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간직하게 하는 것이 수기이다.

둘째는 ‘희망’을 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모든 불자들에게 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불할 수 있다는 확실한 희망을 갖게 된다.

셋째는 불자의 ‘대회합’을 이루게 한다. 부처님께서 대·소승 불자에게 모두 성불한다는 수기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불교의 길은 다 성불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편임을 믿게 된다. 이에 불교도는 목적과 방편의 정진에서 화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중생에게 부처가 될 씨앗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씨앗이 없는 열매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불성이다.

그러므로 법화경은 수기경이며, 대소승의 교리를 통일하는 중요한 경전이라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나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라!”라고 법문을 마치고 신도들과 함께 정성으로 백중기도를 임재했다.

<글 황청량삼>



5월 초하루기도

5월 30일(음력 5월 1일) 야외법당과 실법전에서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하여 사시 예불을 봉행하고 비가 오는 관계로 신묘장구대다라니와 광명진언을 한목소리로 염송하며 나라가 안정되고 사회와 가정의 평화로우며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초하루 법회를 마쳤다. <글 서용화수>



뉴스&뉴스

불교스카우트 지도자 훈련

어린이·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한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연맹장 성행스님)은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김포 중앙승가대학교 학인 스님 32명을 대상으로 지도자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어린이청소년법회 운영에 필요한 지도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범회 지도능력을 배양하며, 사찰 불교스카우트 활성화를 통한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2박 3일 동안 훈련에 참가한 스님들은 화랑도와 불교스카우트, 친교 범회등 지도자의 역할과 훈련, 국제 활동 등 교육을 이수했다. 연맹장 성행스님은 “어린이청소년법회 인원이 날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장차 단위 사찰 어린이청소년법회를 담당할 여러 스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번에 익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응용해 범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글 주향진성>



제9회 불교대학 입학식

코로나로 인해 2년간 개강하지 못한 불교대학이 지난 6월 21일 오후 2시 입학생 2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선불장에서 제9회 불교대학 입학식을 봉행했다.

이날 주지성행스님은 “처음 맘을 내고 발심하는 마음이 정각을 이룰 때까지 변치 않아야 하듯이 처음 불자로써 시작되는 불교대학 입문과정을 하는 것도 부처님의 일대사를 알기 위함도 있지만 그동안 살아오는 삶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진정한 불자를 거듭나기 위한 공부이기도 합니다.”고 법문 했다.

이번 불교대학은 어린이범회 지도법인 수인스님의 강의로 매주 화요일마다 불교기초입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강의 끝나고 입학생들은 교학처에서 준비한 다과를 함께 하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6월 9일 중앙승가대 김응철교수님의 ‘초발심자경문·천수경’ 경전반도 개강했다. <글 조여래장>



백중기도 임재

지난 25일 코로나로 조심스럽고,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었던 2년의 백중기도가 이제는 조금 여유 있는 가운데에서 엄중한 마음으로 사부대중은 선광 부모영가를 위한 백중기도 임재를 여법하게 봉행했다. 이날 주지스님은 “자연의 사계절이 있듯 인생도 1. 생유의 세계, 2. 분유의 세계, 3. 사유의 세계, 4. 중유의 세계 즉 사계의 세계가 있다. 그 중 중유의 세계란 삶도 죽음도 없는 세계이며 죽음의 세계에서 환생하기까지 49일이 걸린다. 부처님께서는 ‘진실 불허’라 말씀하셨으니 이는 곧 진실 되어 허망함이

이다. 왕왕 진흙 가운데 가시가 있는 것과 웃음 속에 같이 들어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방편이를 들고 달을 치고 대를 이어 하늘에 내려는 것과 같을 뿐이겠는가?

옛 사람이 一言半句를 담하되 날카로운 칼을 휘둘러 바로 곧 사람의 명근을 끊으려 함과 같은 것이니 만일 한 개 가죽아래 피가 있다면 바로 알아듣고 다시 헤아려 의논할 게 없거나 만일 한 개 아프고 가려운 곳을 알지 못하는 이를 만나면 비록 너덕히 해골바가지가 땅에 가득하게 된다 하더라도 星慈寺를 매물한 것이다.

또한 돌 가운데 갈무리진 옥과 같이 아는 자는 連城의 벽이 있음을 알지만 알지 못한 사람은 한 덩어리 돌로 볼뿐이다.

이미 言句에 있지 않다면 필경 어느 곳에 있느냐? 만일 이 속을 향하여 안다면 문득 이 일은 수치를 가지하지 않고 몸이 팔을 부리는 것 같고 팔이 주먹을 부리는 것 같아서 극히 반드시 이를 짓으며 극히 힘이 될림을 알 것이니 다만 믿고 얻어 미치면 문득 이것이다.

무엇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눈썹을 세우며 뺨을 짓고 모양을 이끌어 한 글자 보기를 기다릴 것인가?

만일 혹 그렇지 못하면 고인이 이르되 “無心이 도라고 이르지 말라. 無心도 오히려 하

이다. 이 속에 이르러 능히 들고 들은 바와 의심하고 의심한 바가 함께 있어지면 無라고 하는 無도 또한 없을 것이다.

香齋(대나무)소리를 들은 것과 靈雲이(복숭아)꽃을 본 것과 현사가 발가락을 돌에 부딪은 것과 장경이 밭을 만 것이 다 이 무심을 말미암아 깨닫지 아니함이 없다.

이속에 이르러 털끝만큼이라도 깨달음을 기다리는 마음이 나고 정진한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곧 이것이 도둑질하는 마음이 쉬지 못할 것이고 능소를 잊지 못할 것이다.

이 한가지 병은 다 도를 장애하는 실마리다.

만일 眞空을契悟하여 친히 고인의 지위에 이르러서 하면 반드시 모름지기 참되고 바르게 하여 無心三昧에 이르러야 비로소 옳다.

그러나 이 無心은 네 비유가 자못 분명하거나 나와 내가 다시 계승으로 증명할 것이다.

“이것을 얻지 못하면 어찌 저것을 얻으랴? 이미 저것을 얻었으면 이것을 잊어버려라. 그러나 비록 이와 같으나 다시 모름지기 알라. 적적히 참된 것은 漸進, 아지랑이와 꽃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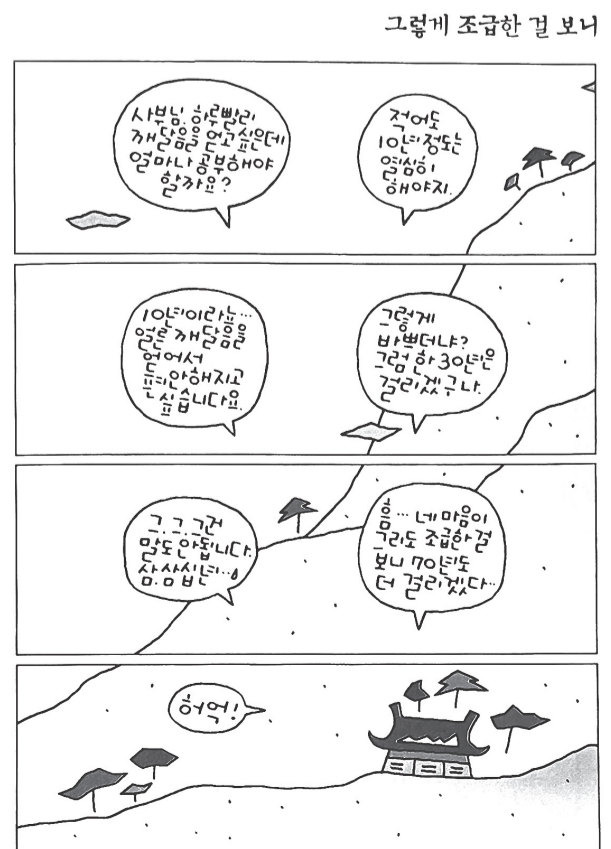
덕민 스님 <불국사 승가대학 학장>

쉬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면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저 개울물이 흘러흘러 마침내 바다에 닿듯이…….

—법구경



마음밭에 무얼 심지? 중에서





마음따라 찾아가는 산사순례 99

관음성지 ㉞

정암사

한국불교 대표 종단 조계종 사찰은 전국에 3천 사암에 달 합니다. 이 사찰은 행정구역상 25교구로 구성되며 각 교구마다 본사가 설치되어 소속된 말사 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기획지면으로 떠나는 '108성지 순례'는 25개 교구본사를 순례하고 '관음성지' '지장성지' '미륵성지' 주요 영험 기도처별로 찾아 나서, 신도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수마노탑은 고려시대에 조성된 불탑이다. 국보 제332호. 높이 9m. 석탑은 정암사 적멸보궁 뒤쪽에 자리하고 있다. 급경사를 이룬 산비탈에 축대를 쌓아 평평한 대지를 만들고 석탑을 세웠다. 벽돌처럼 돌을 다듬어 올린 모전석탑이다. 바닥돌은 모를 가공한 화강암 석재를 6단으로 쌓아 올려 구성하였는데, 맨 윗부분에는 몸돌을 받치기 위해 2단의 꺾임 돌을 또 마련하였다. 몸돌을 구성하는 돌은 화녹색의 수성암질 석회암을 길이 30~40cm, 두께 5~7cm의 크기로 다듬은 것인데, 다듬은 수법이 정밀하고 돌의 표면이 갈끔

는 풍경이 남아 있다. 밑면 받침은 1층이 7칸이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1단씩 줄어서 7층은 1칸이다. 윗면인 낙수면의 층단도 1층은 9칸이지만, 역시 위로 올라갈수록 1단씩 줄어서 7층은 3칸이다.

머리장식인 상륜부에는 화강암으로 만든 노반 위에 벽돌처럼 깎은 2장의 돌이 얹혀 있고, 다시 그 위에는 청동으로 만든 상륜이 설치되었다. 청동제 상륜은 꽃무늬를 뿔새김으로 새긴 오륜탑을 위로 올라갈수록 너비를 줄여 올려놓았다. 그 위에 복발 모양을 두었으며 보륜 위에는 병 모양을 얹었는데, 병의

정암사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태백산에 있는,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

의 말사이다.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의 하나이다.

사적기에 의하면 자장율사는 말년에 강릉수다사에 머물렀는데,

어느 날 꿈에 이상한 스님이 나타나 “내일 대송정에서 보리라.” 라고 하였다. 아침에 대송정에 나가기 문수보살이 내현하여 “태백산 갈반지에서 만나자.” 하고 사라졌다. 자장율사는 태백산으로 들어가 갈반지를 찾다가, 큰 구렁이가 파리를 틀고 있는 것을 보고 제자에게 ‘이곳이 갈반지’라 이르고 석남원을 지었는데, 이 절이 정암사이다.

적멸보궁은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부처님 사리를 수마노탑에 봉안하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건립한 것이다. 수마노탑에 불사리가 봉안되어 있기 때문에 법당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고 있다.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창건, 5대 적멸보궁 국보 제332호 수마노탑에 부처님 사리 봉안

하게 잘 정돈되어 있어 얼핏 보아서는 마치 벽돌을 쌓은 것처럼 보인다. 1층 몸돌은 너비가 1.78m이고 높이가 1.03m로, 단면이 네모나게 15단으로 돌을 쌓아 만들었다. 남쪽면 가운데에는 화강암으로 네모난 틀을 짜서 만든 감형이 설치되어 있다. 문베는 1장의 널돌로 만들었는데, 가운데에 세로 줄을 돌을 새김하여 2쌍의 문을 나타내었고, 문의 중심부에는 철로 만든 문고리를 달았다.

지붕돌은 전탑 특유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추녀는 수평을 이루고 있지만 좁은 편이며, 전각에는 위아래에 풍경을 달았던 구멍이 뚫려 있는데, 현재 윗층 지붕돌의 일부에

목에서 네 가닥으로 돌출된 끝부분에는 풍경이 달려 있다. 맨 꼭대기에는 윗부분이 바깥쪽으로 크게 굽은 수연 모양을 올렸고, 병의 목에서 나온 쇠로 만든 자물쇠인 철쇄는 4층 지붕돌까지 연결되었다.

이 석탑은 규모가 거대한 편은 아니지만 형태와 조성 수법이 정교하다. 지붕돌 귀퉁이의 밑면이 위로 치솟은 것은 건립 시기의 양식을 잃지 않은 것이고, 청동제 상륜의 뿔새김 수법 또한 시대적인 특징을 보여 준다. 석탑 앞에는 배례석이 놓여 있는데, 조각된 연꽃무늬나 안상 무늬 등은 고려시대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정리 여여광)



◊부처님 사리 봉안된 수마노탑

사찰음식 배워보기 감자 몽쟁이

*재료: 감자 4개, 밤 5개, 팥콩 1/4컵, 대추 5개, 잣 1T, 설탕 1T, 소금 1/3T, 참기름 1T, 물 1T

- *만드는법:
1. 감자는 껍질을 벗겨 강판에 갈아서 배보자기에 넣고 짜낸다.
 2. 간 밤을 4등분한다.
 3. 대추는 씨를 빼고 돌돌 말아 4등분한다.
 4. 팥콩도 씻어 물기를 뺀다.
 5. 감자와 소금, 설탕, 밤, 대추, 콩, 잣을 섞어 한 입 크기로 뭉친 후 찜통에 찐다.
 6. 서로 붙지 않게 물에 참기름을 타서 뿌린다.
 (정리 주향진성)



옛날 중국에 진정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고통에서 구하려고 하는 의사 양퇴암(梁退庵)이 살았다.

어느 가을날, 그의 친구인 제비특(齊斐特)이 게 두 바구니를 술과 함께 보내왔다. 미식가들에게 가을 게와 술은 입맛당기는 결합이었다. 그런데 선물을 받은 양퇴암은 이상한 일을 했다. 그는 게들을 부엌으로 가져가지 않고, 집 근처의 작은 개울로 가 놓아주었다.

호주(湖州)에서 온 한 손님이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변변찮은 고향의 장봉(張封)옹이 생각나는군요. 여러 세대에 걸쳐 그의 집안은 채식주의자로서 아무 것도 죽이지 않았습니니다. 이 와 같은 자비에 대한 보상으로, 그 집안의 많은 사람들이 권세와 명예를 가진 정부의 고위직에 진출하였습니다. 예언하건대, 당신의 자비심으로 앞으로 당신의 귀한 자식이 장씨 집안의 아들들같이 황제의 높은

불상생과 방생의 공덕

생명사랑 이야기 100

88 행복한 계들

은 신하가 될 것입니다.” 양퇴암은 웃으며 말했다. “선행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생물을 고통서 구하려는 의사

이지,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한 그 어떤 선행도 나 자신이나 가족을 위한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 게들이 냄비 속에서 살아지는 것보다 저 개울 속에서 더 행복하게 보였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나에게 충분한 보상이 됩니다.” 그 후 양퇴암의 아들 제정(齊靑)

은 성장하여 당당히 과거시험에 합격해 고주(高州) 민(閔)현을 다스리도록 파견되었다.

마침 그 현에 친한 친구인 학자 장이 양제정의 집에서 한 달간 묵었다.

그는 가족 식사에서 동물 식품이 없는 걸 보고 즐거웠다. 공식적인 식사에서, 거의 모든 요리가 채소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친구 장은 놀람게도 장봉옹의 아들임이 밝혀졌고, 그 또한 채식주의자였다.

양제정 역시 친구인 장에게 감동하였다. 장은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며 검소하게 생활했다.

이렇게 모두가 채식주의자 이고, 간소한 음식을 먹고, 조용히 겸허하게 그리고 부패하지 않고 충실히 의무를 수행하고, 공정하고 정직하다면 살기 좋은 놀라운 세상이 아닐까?

이런 세상에 살고 싶다면,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하지 않고 남들에게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명나라 고승 연지 주굉스님)



성행스님의 문답으로 배우는 불교 98

불교를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는 불자들도 교리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불자라면서 불교의 기본 교리를 알지 못하면 참으로 딱한 일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신앙에 대해 자신이 없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교리 즉 교(敎)를 몸이라 하고 선(禪)을 마음에 비유합니다. 불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교리에 대해 간결한 문답으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문) 불교와 기독교는 어디가 다른가요?

답)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으나 가장 큰 것은 불교는 기독교와 같이 독선적이고, 독단적이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불교는 그런 편협한 견해를 배격합니다. 또 기독교는 ‘공(空)의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온전한 지혜, 온전한 자비행을 잘 모르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 불교와 유교는 어디가 다른가요?

답) 유교는 본래 불교의 철학을 빌려 주자학(朱子學)을 만들었으나 그 주자학은 지나치게 이론에 치우쳐 깊은 수행의 중요성을 경시한 채 그저 형식주의적인 도덕에만 떨어져 종교의 근본이상인 인간 구원의 문제를 무시한 사회윤리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점이 크게 다른 점입니다.

문) 불교에서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어떤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답) 1) 나만을 생각하고 위하는 개인주의
2) 관능적 욕심만 채우려는 향락주의
3) 거짓과 속임수에 의존하는 상업주의
4)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금전만능주의
5) 내 종교, 내 종파만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종파주의
6) 물질의 가치만을 존중하는 물질주의
7) 지역과 혈연, 학벌에 따라 모이는 당파주의
8) 분수를 모르는 사치와 낭비
9) 겸허한 반성과 참회를 외면한 교만
10) 자기 능력을 키울 줄 모르는 나태
11)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회의주의
12) 무자비한 투쟁과 파괴를 주장하는 공산주의
13) 개인과 사회의 조화 있는 협동을 무시하는 전체주의
14)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이익만 구하는 현실주의
15) 인간의 창의력을 무시하고 귀신을 찾는 미신
16) 자기의 좁은 소견만 믿고 남을 멸시하는 배타주의
17) 무조건 강대국의 품목을 따라가는 사대주의
18) 현실생활 속의 책임을 망각하는 현실도피주의
19) 인간의 역사가 의미가 없다고 보는 허무주의
20) 될 대로 되라고 생각하는 자포자기 등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절 명장면



◊고사리 손으로 난치별 어린이들이 나눔을 하고 있는 어린 불자들 (사진 심대덕님)

청계사 정기법회 안내

- ◇ 초하루 법회
음력 매월 1일 오전 10시 30분
(회주 종상 큰스님 또는 주지스님 법문)
- ◇ 3일 신중기도
음력 매월 1~3일 오전 10시 30분
- ◇ 보름법회
음력 매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다라니주력기도)
- ◇ 지장재일 법회
음력 매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광명진언사경)
- ◇ 관음재일 법회
음력 매월 24일 오전 10시 30분(금강경독송)
- ◇ 어린이·청소년 법회
매월 2, 4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 불교 대학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 불교 경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 시민선원
매주 월, 수, 오후 2시, 저녁 7시
경내 선불장
- ◇ 마사회 법회
매월 첫째주 월요일 11시
정계사 설법전
- ◇ 서울구치소 법회
매주 수요일
서울 구치소
- ◇ 의왕경찰서 법회
매월 1회
의왕경찰서

- ◇ 새벽 예불
매일 새벽 4시
- ◇ 사시마지 기도
매일 오전 10시 30분
- ◇ 저녁예불
매일 저녁 6시 30분
- ◇ 문의
종무소 (031)426-2221/426-2348
은행계좌:109-058786-01-413
중소기업은행 (예금주:정계사)

※ 차량안내

미가참치(구 오성갈비)앞에서 매일 오전 9시와 10시에 출발합니다. 초하루나 큰 법회(입춘, 초파일, 칠석, 동지)에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수시로 운행합니다. 내려가는 차편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부처님과 자만추 꿈, 용기, 도전하는 어린이 청소년 청계사 불교스카우트 대원 모집

부처님 품 안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 청소년으로 학력이 필요없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나의 행복을 위한 자비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릅니다. 해외 봉사활동 등을 통해 글로벌 시민의식을 키우고 자연과 환경보존을 위한 지구 지킴이가 됩니다.



제1연전, 인명구조 등 나의 이웃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라납니다. 스키, 수영, 승마, 캠핑, 박물관 등 계절별 각종 야외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도전정신을 키워줍니다.

- 창의력 향상
- 사회성 함양
- 성격적 정서안정
- 탐구능력 배양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이 세상 끝까지 간다.
녹향원은 의왕시 청계로376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로 청계사에
운영·지원하는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이달의 후원금

금 3,388,850원

후원금을 보내주시려면

국민은행 : 870501-00-008169
(예금주-녹향원)

녹향원이 법인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후원금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후원을 계획하시는 후원자분들은 위의 후원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CMS 자동이체는 녹향원을 방문하시거나 매달 초하루법회에서 후원모집 부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후원가족 자원봉사자 모집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1회 학습지도, 청소, 목욕봉사를 합니다.

녹향원 자원봉사 명단

봉사 활동 없음.



후원자님! 소중한 인연과 뜻이 주시길 바랍니다.
예금계좌 : 국민 870501-00-008169 녹향원

우리들의 따뜻한 사랑이야기

직원단합대회 '꽃길만 전자'

격려하고 소통하며 즐거운 직장 분위기 만들기 위해 노력



6월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3년 만에 직원 단합대회를 진행했다. 업무에 지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결속과 화합을 도모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 위해 마련했다.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Table with columns: 수입 (구분, 금액), 지출 (구분, 금액), 전월이월금, 차기이월금. Total income: 3,388,850; Total expenditure: 1,015,285.

녹향원 후원자 명단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

- List of donors and amounts: 직접후원 (5,000원~15,000원), 자동납부 (5,000원~10,000원), 지정후원 (1,050,000원).

물품 후원

파리바게트-빵, 김재기-타일장판, 임학순원주추어탕-추어탕, 김치, 청계사-과일, 떡

새 후원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등불

타면자건(唾面自乾)

타면자건(唾面自乾)은 '남이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 그것이 저절로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으로 체체에 인내가 필요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성행스님
(청계사 주지 녹향원 이사장)

타면자건(唾面自乾)은 '남이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 그것이 저절로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으로 체체에 인내가 필요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포용과 배려는 고통스러운 인내 없이 불가능 하며

세상을 남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연히 마를 것이야.' 화가 나서 침을 뱉었는데, 그 자리에서 닦으면 더 크게 화를 낼 것이니, 닦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당부였다.

한 모습을 본뜬 글자다. 칼날로 삼장을 후비는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바로 인내다.

생활의 지혜

- 꿀을 떠낼 때: 손가락을 꿰는 물에 잠깐 넣었다가 꿀병에서 꿀을 떠내면 꿀이 흐르지 않아 갈끔하다.
• 딱딱해진 햄은 우유에: 먹다 남아 딱딱해진 햄은 우유에 담그고

나면 신선함을 되찾는다.
• 프라이팬에 음식이 붙을 때는: 프라이팬에 소금을 얹고 검은색으로 변할 때까지 구워준 후 소금을 버리고, 다시 기름을 두르고 닦아주면 된다.

(운)은 있지만 정해진 운명(運命)은 없습니다. 운은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끼의 씨앗

(정리 심 대덕님)

Table with 8 columns representing zodiac signs: 쥐띠, 호랑이띠, 용띠, 말띠, 원숭이띠, 개띠, 소띠, 토끼띠, 뱀띠, 양띠, 닭띠, 돼지띠. Each entry includes a brief description of the sign's characteristics.